

여 93.1.22

주부들,

## 가장 어려운 일은 주택문제

### 한국리서치, 주부 8백명 대상 설문조사

우리나라 주부들은 '주택문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국리서치가 지난 12월30일과 31일 양일간 전국 6대도시 주요 8백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응답자의 27.0%가 주택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꼽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교육(26.5%), 경제적인 어려움(14.0%), 물가고·생활고(1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대 어려움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문제를 지적한 주부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월소득 99만원 이하 가정에서 노무직, 기능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았으며 도시별로는 대구, 대전 주민들이 우선으로 꼽았다.

자녀교육을 어렵다고 답변한 주부들은 연령별로 40대가, 1백만원 이상 소득가정 농축·수산업자에게서 많았으며 도시별로는 부산, 대전 주민들이 많았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부는 20~30대, 월소득 99만원 이하, 단순노무직 기능직, 기타 무직인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도시별로는 인천 주민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나왔다.

물가고, 생활고를 어려운 일로 말하는 주부는 30~50

대, 월소득 49만원 이하나 2백만원 이상에서 상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광주, 대구, 인천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2년 전 같은 조사결과에 비해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90년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18.0%)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으로 주택문제(15.6%), 남편직장문제(14%), 자녀교육문제(12.9%), 가족의 건강문제(6.4%) 순이었다.

92년 조사에서는 주택문제(27.0%), 자녀교육문제(26.5%), 경제적인 어려움(14.0%), 물가안정(13.3%), 가족의 건강문제(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90년 조사보다 많이 지적한 내용은 자녀교육(13.6% 증가), 주택문제(11.4% 증가), 물가안정(8.4% 증가), 교통문제(1.2% 증가) 등이고 감소한 사항은 남편직장문제(13.0% 감소), 경제적인 어려움(4.0% 감소), 민생치안(2.4% 감소), 가족성원간의 갈등(2.4% 감소) 등이 다.

결과적으로 요즘 주부들은 2년 전에 비해 주택문제, 자녀교육문제, 물가문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